

◆전자선단층촬영을 이용한 심근관류량측정; 99mTc-MIBI 스캔과의 비교

이승구, 최규옥, 최진영, 이종두¹, 전태주¹, 하종원²

연세의대 진단방사선과, 핵의학과¹, 심장내과²

배경 및 목적 : 전자선단층촬영을 이용한 심근 관류 측정법의 유용성을 핵의학 심근 관류검사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한다.

방법 : 정상인 6명, 허혈성 심장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5명을 대상으로 EBT를 사용하여 좌심실의 단축상면으로 총 8개의 단면을 선택, 50cc의 조영제 일시 주입 후 R-R 간격 동안 16주기의 영상을 얻었다. 기저부, 중간심실부, 심첨부로 나누어 전체를 16개의 분엽으로 설정, 내장된 프로그램을 이용 관류량을 구하였고, 같은 분엽에서의 핵의학 검사상 광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.

결과 : 정상군 모두와 환자군 4례에서 EBT 심근관류치와 99mTc-MIBI 스캔상 측정된 광자 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. [상관계수 0.63-0.92] 관류스캔상 결손 부위는 EBT 상 $0.619 \pm 0.14 \text{ ml/g/min}$, 정상관류 부위는 $1.024 \pm 0.15 \text{ ml/g/min}$ 로 측정되었다.

결론 : EBT를 이용한 심근 관류 검사는 비침습적이고 안전하며 짧은 시간에 심근 관류 상태를 절대치로 보여줄 수 있는 검사법이며 기존의 검사보다 정확한 해부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책임저자: 최규옥(연세의대 진단방사선과) 발표자: 이승구(연세의대 진단방사선과)